

목포, 내 삶 바꾸는 평생학습도시 시민중심으로 구현

목포시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배움과 나눔이 실현되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면서 시민중심의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즐겁고 다채로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회를 대폭 늘리는데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현재 시는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 사랑방 평생학습 프로그램, 목포시민 아카데미 강좌, 목포 역사 이야기 프로그램, 찾아가는 배달강좌, 사회적 약자 참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평생학습을 견인하고 있다.

현재 2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사랑방 프로그램을 운영중

으로 문화여가·건강운동·학습 등 총 115개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 수요에 맞는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해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배달 강좌'도 인기 프로그램이다.

학습자가 원하는 곳으로 배움을 전달하는 평생학습 서비스로 우리 시 강사은행에 등록된 강사를 파견해 일자리 창출까지 하고 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더 많은 지원을 위해 도비를 확보해 평생학습 동아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사회적 약자 참여 프로그램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사각지대 없는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외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박성태 기자



목포시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배움과 나눔이 실현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면서 시민중심의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강진군, 여름철 위생해충 집중 방역 강화

“흰 연기 없는 친환경 연무 소독으로 쾌적 환경”

강진군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하천변, 웅덩이 등 방역 취약지와 인구밀집지역,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모기, 파리, 진드기 등 해충 박멸을 위한 여름철 집중방역소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군보건소는 지난 5월부터 11개 읍·면 방역 소독반과 함께 주 4~5회 이상 방역소독을 해오고 있다.

소독은 모기 활동이 활발해지는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수풀이 많은 외곽이나 모기가 산란하기 좋은 웅덩이, 연못, 하천, 풀숲은 연마소독을, 우수구나 차가 들어가기 힘든 곳은 휴대용 분무소독을, 인구 밀집 지역 등은 인체에 무해한 연무 소독을 실시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최근 자연 친화적이며 인체에 해롭지 않은 연무 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 중이다. 연무소독은 친환경

방역소독 방식으로 물과 혼합된 살충제 입자를 수증기 형태로 분사해, 해충에 접촉 치사시키는 원리이다. 경유를 사용하지 않아 환경오염이 덜하고 연마소독 시 발생하는 흰 연기가 없어 시야 가립이 없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일부 군민들이 기존 익숙했던 방역 소독 시 발생되는 흰 연기가 보이지 않자, 소독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오해가 있어, 군은 연무소독의 이점을 각 읍면 담당자와 언론을 통해 적극 알리고 있다.

군보건소는 올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감염병 발생 차단을 위해 방역취약지역에 대해,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방역소독에 관한 문의는 보건소 (061-430-5241, 5247)로 하면 된다.

/박종옥 기자

영암, 전지훈련 선수단 지정병원 협약

영암한국병원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약속

영암군(군수 우승희)과 영암한국병원(원장 오남호)이, 최근 영암군 청에서 전지훈련 선수단 지정병원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영암을 전지훈련장 삼은 다양한 종목 선수단에게 최상의 훈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하자고 약속했다.

영암군은 이번 협약식으로 전국 전지훈련팀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을 다렸다는 평가다.

영암한국병원이 물리치료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약속함에 따라, 전지훈련 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

성되면 전지훈련 최적지로 영암군의 이미지가 제고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군에서 전지훈련하는 선수단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며 “전국에서 모여든 선수들이 영암의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이용

하며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선수와 지역 상인이 서로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기철 기자

신안, 마늘 수확 기계화 기술 교육 실시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26일 마늘 수확 기계화 현장연시회를 개최하고 마늘 줄기 절단, 줄기 파쇄, 수확 등 마늘 재배에서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마늘 수확 기계화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시회는 신안군의 ‘양념채소 생력 기계화 확대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파종부터 수확, 저장까지

마늘 전 과정 일관기계화 기술 정립 및 기계화 확대 보급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존 재배 방법에서 수작업으로 만 이루어지는 줄기 절단 및 수확 작업을 기계화함으로써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줄여 관행대비 작업시간 최대 80%, 작업비 60%까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어 기계화의 중

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신안군과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는 ‘밭작물 스마트 기계화 재배모델 현장 실증’으로 지역 맞춤형 일관기계화 재배 기술 정립에 앞장서고 있다.

신안군은 이번 시범사업 이외에도 생분해성 멀칭필름 확대 보급 및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등 밭작물 기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홍근 기자

무안군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서비스 제공

무안군(군수 김산)은 최근 치매 환자의 신체, 심리, 환경적 요구와 관련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사례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치매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위원회는 치매안심센터 협력 의사, 치매안심팀장, 경찰서, 청년회, 방범대, 사회복지협의회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중 돌봄 사각지대에 있거나 치매로 인해 복합적인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과 연장 여부를 심의한다.

사례대상자로 선정된 치매 환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1:1 가정방문으로 건강관리(투약 관리, 정신 행동 증상 관리), 일상생활 관리(사례관리 물품 제공, 자가 돌봄기술교육), 가족지원(가족 상담, 의사소통 방법)과 관계기관과의 협조로 지역 사회 지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치매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부담이 크므로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민재 기자

함평,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함평군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맞춤형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최근 ‘맞춤형 반부패·청렴교육’이 최근 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7급 이하 공직자, 신규임용자, 부패취약부서 담당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6급 이상 공직자 교육에 이어, 이번 교육은 7급 이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청렴교육 전문 강사가 진행한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공재정환수법 등의 주요 내용이 다뤄졌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공직사회에 청렴한 공직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